

‘국제화 부응한 인재육성 비전있다’

印權植 부학장
신성전문대학



지난 92년도에 경북 왜관에 소재하고 있는 동국전문대학에 국내 처음으로 포장과가 개설돼 관련업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오늘날 포장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비중을 생각할 때 정규대학에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전문학과 하나 없었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왜곡된 현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체계에 전문대학에서나마 뒤늦게 포장과가 설치된 것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포장산업의 이론적 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사실 국내 포장산업의 외형이 국민총생산의 2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때 2년과정의 학과 하나로 포장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형편이다. 좀더 많은 대학에 포장관련 학과 설치가 요망되는데 현실은 늘 굶뜨고 있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처방이긴 하지만 업계의 공동 노력과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인사들의 미래를 향한 인재육성의 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내년도 신설될 신성전문대학이 ‘산업포장과’를 개설한다고 알려져 업계에 다시 화

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쨌든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개교를 위해 제반 준비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신성전문대학 印權植 부학장(56)을 만나 진행 상황을 들어 본다.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신성전문대학의 설립 배경부터 듣고 싶습니다.

“대학 설립은 신성그룹의 李丙夏 회장(58)이 오래 전부터 육영에 뜻을 두어온 바, 비로서 내년도에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신성그룹은 주력기업으로 신성레미콘이 있고, 그 외에 신성아스콘, 태촌기업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관련 그룹입니다. 이 회장님은 그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여느 재벌만 하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게 쌓은 작은 부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젊은이들을 인재로 육성하는 데에 아낌없이 투척하셨습니다.”

▲학교를 굳이 충남 당진군(정미면 덕마리 산 49)에 세우게 된 데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
**국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포장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산업포장과를 개설……
 ”

“이 회장님이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 봉사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하겠지요. 사실 다른 곳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좀더 조건이 열악한 고향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신 걸로 압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당진’이라는 말에는 예전에 당나라의 진, 즉 나무가 있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시장 진출의 전략지로서의 고려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 학교 시설 내용과 학과 설치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교지는 약 10만평을 확보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학생복지시설 등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체육관을 비롯해 학생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을 지을 예정입니다. 제반 시설과 장비들을 교육부 기준 이상으로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십분 고려해 보다 실용적인 분야와 관련해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정비과, 자동차과, 전기과, 공업화학과, 환경공업과, 전산정보처리과, 품질관리과, 산업포장과, 관광중국어통역과 등 9개과를 설치, 각과별로 정원을 80명씩 모집합니다.”

▲ 저희로서는 ‘산업포장과’에 대해 가장 관심이 가는데요, 특별히 산업포장과를 설치하시기로 하신 데 대해 그 동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91년도부터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어떤 학과를 둘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다른 학과도 비슷한 관점에 있지만 국내 산업경제에서 포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그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아주 미흡한 수준에 있는 현실을 알게 돼 산업포장과 설치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학과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는 포장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기반이 구조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나중에야 동국전문대학에 포장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지만 어쨌든 산업포장과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 포장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정규대학에 관련학과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부닥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교수진 확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성전문대학에서는 특히 산업포장과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교수진 확보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포장산업과 관련해 국내에는 체계를 갖춘 전문교육기관이 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를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듯합니다. 저희는 일단 초빙 공고를 내는 한편 여러 경로를 통해 교수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수 2명에 조교 1명을 모시려고 목표했었

“
**산업포장과의 커리큘럼은
 무엇보다 담당교수의 교과계획과 재량에
 따라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포장공학
 전반에 걸쳐 현장성 있는
 교육이 돼야 할 것**
 ”

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교수 1명에 조교 1명으로 일단 내년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 다시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포장과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교수가 확정되면 그 분의 교수 계획과 재량에 맡겨야 겠지요. 어쨌든 대강의 저희 생각은 포장공학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현장위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포장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도 3할 정도의 비중이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여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한 고려입니다.”

▲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생을 배출한 이후의 대책과 또한 지방학교에서 좋은 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사실 지방에 소재한 전문대학에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자질이 조금 부족한 듯 여겨졌을지라도 그네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숨어 있던 자질이 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재육성의 참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희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모든 학과 학

생에 대해 영어와 중국어 마스터를 위해 매일 공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인재로 키기 위해서는 고3 수험생 못지 않게 지독하게 공부를 해야 겠지요.

배출될 학생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입지조건상 성문공업단지를 비롯해 기아공단, 대산공단 등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단과 맞먹는 규모의 아산만공단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문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 방침대로 학생들이 열심히만 해준다면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재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서로 먼저 데려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 부학장은 신성전문대학이 5년 뒤면 명문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리고 장차 학제도 2년제에서 4년제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직업훈련원 수준에 그치는 전문학교가 아닌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의 교육기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쨌든 신설학교인 신성전문대학에서 포장관련 학과를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포장업계의 정체감이 고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국전문대학의 포장과를 비롯해 신성의 산업포장과의 장래는 단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닌 포장업체와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의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